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10/12/2025

꿈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 사람이라면 꿈이 있겠지 쉽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꿈에 대해 묻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다고 대답하거나 “나이 들어 무슨 꿈이냐”라고 말하기 십상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요즘은 <꿈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꿈은 이상적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요즘은 현실적 작은 그림에 몰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성공, 개인의 기쁨에 몰두하게 되면 사람은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그림만 그리며 꿈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면 관심 있었던 곳을 꼭 방문합니다. 책에서 알게 되었던 역사적 장소와 신앙의 유적과 관련된 곳을 한 곳이상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부부수양회>로 갔었기에 “용인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비롯해서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 “주기철목사순교기념관”,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등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이 의미 있었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명동에 있는 <히즈빈스> 카페였습니다.

<히즈빈스>는 2008년 한동대 학생이었던 임정택 씨를 통해서 세워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커피 기업을 세우는 꿈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히즈빈스>를 세우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히즈빈스>는 2023년 기준 장애인 165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수는 카페와 로스팅 공장, 본사 직원의 70%가 넘는 숫자입니다. 맨 처음 조현병 장애인 4명을 바리스타로 교육시켜 취업하게 함으로 시작된 1호점 카페를 비롯해서 2024년 기준 38개 매장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히즈빈스> 카페가 포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이 기업을 한 책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소개한 것을 보고 이번에 직접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아직 2개밖에 없지만, 장애우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명동점 커피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정택이라는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 그것도 기업이라는 문화 속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